지방선거 입지자들 '뜨거운 여름'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군 휴가 반납한 채 분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여름휴가도 반납한 채 지역구를 순회하며 '민심투어'에 나서는 등 지역민들과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하계 휴가에 들어간 박준영 전남지사는 전남지역 시·군을 구석구석 돌고 있다. 박 지사는 이날부터 담양과 구례를 시작으로 곡성, 여수, 고흥, 완도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박 지사는 이번 순방에서 수해 복구 현장과 투자유치 예정지 등을 둘러보고 자유롭게 도민들도 만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순방에는 비서실장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휴가를 반납한 채 3선을 위한 '민심투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남지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주승용(여수을)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보성군을 시작으로 전남지역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민생탐방과 여론탐색에 나선 주 위원장은 최근 언론인과 지인들에게 이메일로 '주승용이 전하는 희망편지'를 보냈다. 주 위원장은 지난 3일 처음으로 보낸 희망편지에서 "언제나 열려 있는 마음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듣겠습니다"라고 밝히고 미디어법의 부당성과 민생투어 현장을 전했다. 주 위원장 측은 앞으로 메일을 받는 대상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민주당에 복당한 이석형 함평군수는 '강연 정치'를 통해 대중 속으로 파고 들고 있다. 이 군수는 전남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수도권으로까지 활동 폭을 넓히면서 '인지도'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 휴가에 들어간 박광태 광주시장은 서울에 머물면서 정가 인사들과 접촉하며 3선 고지를 향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광주시장 출마 예상자 중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도 휴가를 반납한 채 당 지도부와 함께 미디어법 폐지 투쟁을 벌이며 당내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광주 발걸음이 부쩍 잦아진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최근 지인들을 만나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며 우회적으로 광주시장 출마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갑길 광주 광산구청장 등 이밖의 광주시장 후보들도 '포럼'을 구성해 조직과 인맥을 넓혀가는 등 물밑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독재자' 마르코스 딸도 아키노 추모 필리핀 아키노 전 대통령 추모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전 필리핀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딸 이멜다 조세파씨가 마닐라 대성당에 안치된 아키노 전 대통령의 관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홍종희씨

전남테크노파크 제3대 원장에 홍종희(56·사진)씨가 취임했다. 홍 신임 원장은 향후 3년간 전남테크노파크를 이끌게 된다.

나주 출신인 홍 원장은 1977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업진흥청 공업연구관으로 공직에 첫발을 디딘 뒤 ▲중소기업청 과장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국장 등을 역임하는 등 28년간 중앙정부에서 산업기술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관료 출신이다. 홍 원장은 취임식에서 "지역산업과 전남테크노파크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남개발공사 사장 공모 10명 지원

전남도는 제3대 전남개발공사 사장 공모에 정부투자기관 출신 인사와 기업인, 정치인 등 모두 10명이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사장 후보로 응모한 사람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출신 5명과 기업인 3명, 정치인 1명, 공무원 출신 1명 등이다.

전남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는 응모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5일까지 마무리하고 서류심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7일 면접심사를 치를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

경남 기관장 '접대 골프' 물의

기업인들이 비용 지불

경남지역 기관장들이 최근 김해의 한 골프장에서 '접대성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4일 김해 정산컨트리클럽과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7시30분께 김해시 정산컨트리클럽에서 이운우 경남지방경찰청장, 이인구 국정원 경남지부장, 김태교 39사단장, 박완수 창원시장 등 4명과 창원의 기업체 사장인 이모(57)씨 등 기업인 8명이 3개 조로 나눠 골프를 쳤다.

이들은 골프 직후 인근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일명 '폭탄주'를 곁들인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음주량이 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장 이용료는 그린피가 면제되는 기업인 이씨의 VVIP회원권으로, 식사 비용은 기업인들이 각각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함께 골프를 쳤던 기관장들은 '기관장 모임에 참석하지 못해 겸사겸사 함께 운동을 하게 됐고 기업인이 있는지 몰랐다'며 접대성 골프라는 지적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집단적 자위권 용인해야"

日 전문가기구 촉구

일본 정부가 설치한 전문가 기구가 4일 자위대의 미국 함선 보호를 위해 무력행사를 가능케 하도록 헌법 해석 변경 및 무기수출 3원칙의 재고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아소 다로 총리에게 제출했다.

총리실에 설치된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이날 확정한 보고서는 2010~2014년도 방위력 정비의 기본 방침을 담는 새 '방위계획 대강'에 담을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과 미·일 동맹의 강화 및 일본 독자적인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무기수출 3원칙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엔헌장 51조에는 자국에의 침해를 배제하는 개별적 자위권과 함께 이를 주권국의 '고유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개별적인 자위권 행사는 인정하고 있지만 자국 헌법 9조가 '전쟁 포기, 전력비보유'를 명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닭고기 먹고 뇌 손상"

호주서 KFC 상대 100억대 소송

패스트푸드업체 KFC에서 음식을 먹은뒤 살모넬라균에 감염돼 뇌손상 등을 입은 10대가 KFC를 상대로 무려 1천만호주달러(100억원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올해 11세인 모니카 사만은 7살 때인 2005년 10월24일 시드니 서부 빌라우드의 KFC 매장에서 닭고기 제품을 먹은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손상 등을 입어 현재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모니카는 당시 인체에 치명적인 살모넬라균에 감염됐었다. 함께 KFC 음식을 먹은 모니카 부모와 오빠 모두 살모넬라균 감염 증세를 보여 병원신세를 졌다. /연합뉴스